

Genioplasty에서의 고려 사항

김재승·장현호
서울중앙병원 치과

Genioplasty는 악교정 수술에서 상하악의 골절단술과 동시에 시행이 되건 이부자체만 시행이 되건 결국 안모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자의 경우에서 상하악골의 이동후 최종적인 Menton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Prediction과 이를 시술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엔 설명하고자 하는 후자의 경우에서도 몇 가지점에 있어 결코 쉽게 생각 할 수는 없겠다.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이때 환자 나름대로는 수술하고자 하는 chin 부위에 대해 일정한 양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치가 술자가 의도하는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enioplasty시 연조직 Vertical Proportion에 고려하게 되는 그림 1도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나 설명없이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너무 강한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Complaint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술전 이부의 결핍 양상이 심하고, 여성인 경우에 더하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으로는 환자 자신은 거의 정면 안모로 평가하는데 반해, 술자의 술전 Prediction이 대부분 측모 및 lateral cephalo를 위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ogonion 및 Menton의 전후방 및 수직적의 평가는 위의 그림 1. 또, facial convexity

(NA-APog), facial angle, Delaire analysis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Pogonion의 전방 이동 요구량이 대략 10mm를 넘으면 Two step osteotomy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이부의 수직적 증가를 같이 의도할 때 osteotomy line을 거의 하악 교합평면에 평행하게 최대한 후방 및 상방으로 연장하여 Bone segment가 전방으로 위치될 때 수직 길이 증가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이때 술자가 주로 평가하게 되는 측면 안모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환자가 평가하게 되는 정면 안모에서는 양쪽 Antegonial notch 부근에서 chin의 tip까지 전체적인 하안부의 Volume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뾰족한 턱을 원했던 환자라면 수술 결과에 만족하기 힘들게 된다.

본 환자는 원래 빈약한 턱을 주소로 몇년 전 타과에서 Proplast를 삽입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부의 volume을 좀 더 증진하면서 동시에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본 과에 내원 하였다(그림 2).

lateral cephalo 상에서 이물질의 두께는 6mm 정도 되었으며 이 두께를 제외한 bony pogonion의 전방이동 요구량이 12mm였으므로 two step osteotomy를 시행하여 상·하 각각 6mm씩 Advance하기로 하였으며, 측모 연조직의 수직 비율을 볼 때 술전 N-Sn : Sn-Me 비율이 46 : 54로 수술시 Sn-Mn의 수직 길이 증가를 위해 osteotomy line을 occlusal plane에 평행하도록 하였다.

